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보성군서 세미나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와 보성군이 지난 20일 오후 센터의 관리어촌계인 보성 석간 어촌계가 운영하고 있는 어울림센터에서 '보성 석간의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마을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워크숍에서는 강영엽(54) 석간 어촌계장이 마을 현황, 지금까지 특화 발전을 위한 자체 노력, 미래 석간에 필요한 시설 및 역량 등에 대해, 김윤민 보성군 도시개발과장이 석간어촌계의 성장·발전을 위해 필요한 주민 역량, 도전 가능한 정부 공모사업 등에 대해 각각 설명했다.

김윤민 도시개발과장은 "석간마을이 최근 해양수산부로부터 어촌 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됐으며, 2024년에는 거점권역 개발사업 공모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마을주민들이 이러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영엽 석간 어촌계장은 "마을 공동어장 주변으로 비어있는 공간에 카라반이나 글램핑장 등 숙박시설,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된다면 마을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부터 보성 석간어촌계의 주민 역량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특화 컨설팅 등에 나설 방침이다.

/윤현석 기자 chadai@kwangju.co.kr

광주전남병무청, 사회복지요원 초청 문화 체험



광주전남 지방 병무청(청장 김용무)은 지난 19일 광주지역 특수학교에 복수 중인 모범 사회복지요원 15명을 초청해 생생문화재 체험 행사를 시행했다. (사진)

이번 행사에 초청된 사회복지요원 15명은 광주 선명학교 등 광주지역 5개 특수학교에서 장애 학생들의 도우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며 모범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됐다.

이날 행사에서 사회복지요원들은 우리 지역 문화재인 월봉서원에서 유생복으로 갈아입고 방일당을 돌아봤다. 활쏘기, 전각체험 등을 하며 사람과 사람 간의 조화로운 속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봤던 선비의 다양한 일상생활을 느끼고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요원들은 "지역 문화유산 체험을 통해 서원의 의미와 선비들의 기개와 풍류를 배울 좋은 기회였고 지방병무청장과 복부지도관과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행사를 주관한 병무청과 광산구청에 감사의 말을 전했다.

김용무 광주전남 지방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사회 곳곳에서 성실히 복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요원들을 찾아 지자체와 협업하여 문화행사를 시행하고 격려해 그들이 자긍심을 갖고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광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

광주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는 최근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어등-광주 전원 로타리클럽과 함께 광산구의 한 베트남 다문화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사진)

지난 2019년 시작된 주거환경 개선공사는 광산구 가족센터를 통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다문화가정을 추천받아 이뤄졌으며, 40여명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김디민 기자 kdi@kwangju.co.kr

동신대 광주한방병원 박광천 팀장 제1회 자랑스러운 병원인상 수상

동신대학교 광주한방병원 박광천(42·사진) 총무팀장이 제1회 자랑스러운 병원인상을 수상했다.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와 ㈜메디라인액티브코리아가 올해 공동 제정한 자랑스러운 병원인상은 보건·의료발달과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한 보건·의료 관계자와 병원행정인에게 주어진다.

박 팀장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광주전남도회 사무국장으로서 지역 병원행정인들의 교육과 해외연수, 학술대회를 맡아 진행했다. 동신대 겸임교수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후배 양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제1회 수상자로 선정됐다.

또한 의료기관 종사자의 갈등과 문제 해결 방안, 의약품 임상시험과 의료관망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논문 게재, 농어촌 도서지역 의료봉사 등을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들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했다.

박 팀장은 "앞으로도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광주전남도회의 발전과 회원 간 유대 강화,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광산소방, 가스기술공사 응급처치 소방안전교육



광주광산소방은 최근 한국가스기술공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등 응급처치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광주광산소방 제공>

광주고려인마을, 담양·순창 농촌 문화체험 행사



광주고려인마을은 최근 광주정착 고려인동포 33명을 대상으로 담양과 순창 일대에서 농촌 문화 체험 행사를 진행했다. <광주고려인마을 제공>

TV프로그램 2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6	00 KBS 뉴스광장	00 걸어서 세계속으로 버킷리스트(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7	50 인간극장	00 해 불만한 아침 M&W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하늘의 인연(재)	20 KBC 모닝와이드 40 모닝와이드
8	25 아침마당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맨 인 블랙박스 스페셜 50 좋은아침
9	30 KBS 뉴스	00 KBS 아침 뉴스타임 20 우아한 재국(재)	30 930 MBC 뉴스 45 기본 좋은 날	55 SBS 10 뉴스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00 인간극장 스페셜 40 지구촌 뉴스	45 뽀뽀뽀 좋아	30 살맛나는 오늘
11	00 생로병사의 비밀 50 만담다큐 호수인(재)	00 살림하는 남자들	15 헬로킴즈 과학교실(재) 30 와썹 프리매직	00 꾸러기 탐구생활 7세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25 맛의 나라 <국물의 나라>(재)	00 12 MBC 뉴스 25 황저우 아시안패러게임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5 SBS 황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1	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스케치 50 생활의 발견 스페셜(재)	35 트래킹노트 세상을 걷다 5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재)	55 2시 뉴스 외전	00 뉴스브리핑
2	00 KBS 뉴스 10 2022 황저우 장애인 아시안게임			
3		00 KBS 뉴스타임 15 반지의 비밀일기 2 30 TV 유치원	55 기본 좋은 날(재)	
4	00 사사건건	00 영화가 좋다(재)	55 5 MBC 뉴스	00 좋은아침 스페셜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분남도지오그래피	10 세상의 모든 다큐	10 안싸우면 다행이야 스페셜	00 SBS 오뉴스 50 생활의 달인 스페셜
6	00 6시 내고향	00 KBS 뉴스 6 40 2TV 생생정보	05 광주MBC 보다	20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2차전 NC:SSG
7	00 뉴스7 광주전남 40 공영방송 50주년 기획 우리말 겨우기	50 우아한 재국	05 세 번째 결혼(1회) 40 MBC 뉴스데스크	
8	30 우당탕탕 패밀리	30 개는 훌륭하다		
9	00 KBS 뉴스 9	45 지구 위 블랙박스	00 안싸우면 다행이야	
10	00 가요무대 55 KBS 뉴스라인W		45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	00 SBS 8 뉴스 20 KBC 8 뉴스 40 동상이몽2 너는 내 운명
11	35 9층 시사극(재)	00 더 라이브		
12	15 KBS결작 다큐멘터리	00 아이 러브 스포츠 25 스튜디오 K	30 스포츠 매거진	20 KBC-희망풍차 공동프로젝트 휴먼다큐 나눔 50 국민사행투표

EBS1

05:00	왕초보 영어	10:50	최고의 요리비결	17:40	최고다! 호기심딱지
05:30	클래스 e	11:20	세계테마기행(재)	17:55	한글용사 아이(아재)
05:50	한국기행	12:00	EBS 뉴스 12	18:10	미라클러스: 레이디디버그와 블랙캣
06:10	세계테마기행	12:10	극한직업	18:40	EBS 뉴스
07:00	뽕뽕뽕 뽕뽕 뽕뽕	13:00	EBS 평생학교 1교시	19:00	한국의 둘레길
07:15	빅 블루	13:45	EBS 평생학교 2교시	19:20	고향민국
07:30	출동! 슈퍼피스	14:30	EBS 평생학교 1교시	19:50	곽준빈의 세계 기사식당
07:45	용감한 소방차 레이 최강우주소방대	15:15	EBS 평생학교 2교시	20:40	세계테마기행
08:00	딩동댕 유치원	16:00	영어 스토리 타임	(맛있는 튀르키예3-태양의 선물, 코니아)	
08:20	한글용사 아이야	16:10	독특 문해력 박사	21:35	한국기행
08:35	뽕뽕뽕 뽕뽕	16:40	딩동댕 유치원(재)	(나의 단짝 1부 친구같은 연인 같은)	
08:50	다이노스터	17:00	페퍼 피그	21:55	EBS 다크프라임
09:20	신계속의 맛터사이클 다이어리	17:10	마사와 곰	22:50	인간과 바다
10:10	한국의 둘레길	17:20	애교의 요수리동요	23:40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30	한국기행(재)	17:25	뽕뽕뽕 뽕뽕(재)	24:00	강신주의 장자 수업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3일(음 9월 9일 甲寅)

<p>36년생 정황 파악에 빈틈이 없어야 할 것이다. 48년생 마주 보고 대하면 쉽게 풀 수 있다. 60년생 진중하게 강고한 다음에 대면하게 넘어가는 것이 백번 낫다. 72년생 힘들투라도 시종일관하여 궁극에 이르는 법이다. 84년생 평생 토록 영원히 잊지 못할 일이 발생하리라. 96년생 가마솥의 콩도 삶아야 먹을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16, 67</p>	<p>42년생 새로운 것에 행운이 깃들여 있다. 54년생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다. 66년생 오래 계속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한다. 78년생 내색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대하는 것이 더 낫다. 90년생 의심스러운 국면이 여러 곳에서 보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02년생 자신을 상대에게 맞추는 편이 백번 나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63</p>
<p>37년생 청에만 관심사가 눈 앞에 펼쳐질 것이니라. 49년생 해독은 습관을 개선한다면 길상이 나타난다. 61년생 겉모습만 보아도 대충 짐작이 갈 것이다. 73년생 투명한 태도와 일관된 자세만이 설득력을 확보할 수 있다. 85년생 시각적으로 쉽게 현혹될 수도 있으나. 97년생 직접 가 보아야만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0, 99</p>	<p>43년생 손바람 날 정도로 빨리 처리해야만 효과를 보느니라. 55년생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행할 일이다. 67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한다. 79년생 불확실성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지 말고 꼭 행해야겠다. 91년생 총체적 점검과 정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03년생 뜻이 급다면 이루고야 말리라. 행운의 숫자 : 13, 78</p>
<p>38년생 취약점을 보완한 후에 제도전하자. 50년생 숙명임을 알고 의연히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2년생 용이 물을 얻은 격이니 만사형통하게 되리라. 74년생 조만간에 곤경정이 날 것이니 틀림없다. 86년생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있느니라. 98년생 오랫동안 정성을 다한다면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96</p>	<p>44년생 본격적으로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킨다. 56년생 파상적인 현상일 뿐이니 무시해도 된다. 68년생 무리수를 둔다면 필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80년생 눈 박할 사이에 전개될 수 있다. 92년생 등장 시간이 어둡다는 속담을 명심해야 한다. 04년생 궁극적인 목표를 향해 조금씩 진일보하고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9, 80</p>
<p>39년생 발전된 국면으로 진입하는 쾌거가 있다. 51년생 상생해야만 현실적인 적용이 가능하다. 63년생 생산적인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 75년생 합리적으로 처리한다면 적폐가 해소되면서 불명함이 사라지리라. 87년생 매우 부담스럽고 박찬 하루가 될 것이니라. 99년생 호기가 주어졌을 때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38, 89</p>	<p>45년생 궁극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고 있으면 의문점이 곧 풀리게 될 것이다. 57년생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69년생 인정받을 수도 있는 기회이다. 81년생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수를 저지를 수도 있으니 주의하라. 93년생 길운이 들어오고 있으니 문을 활짝 열어 쫓아라. 05년생 예전에 접하지 못했던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4, 93</p>
<p>40년생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면서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리라. 52년생 복록과 악재가 섞여 있어서 종잡을 수가 없다. 64년생 기왕이면 겉모습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6년생 이치에 부합하고 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 88년생 기존의 노선에서 벗어나면 복잡해진다. 00년생 변동수가 보이니 이를 감안 해야겠다. 행운의 숫자 : 15, 87</p>	<p>34년생 함성이 기대치 이상의 성과를 안겨다 준다. 46년생 굳은 각오로 임한다면 반드시 흥성도 사라지리라. 58년생 상당한 기간 동안, 실시간으로 체크해 봐야 할 것이다. 70년생 팔심은 데 팔 나고 콩심은 데 콩 나느니라. 82년생 깊은 사려가 깃들지 않으면 아니 된다. 94년생 일방적이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행운의 숫자 : 32, 99</p>
<p>41년생 주변의 체면 때문에 참아야만 하는 고통이 지대하다. 53년생 도처에 괴로움이 보이나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니다. 65년생 당분간 말 없이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7년생 아주 가까운 곳에 해결의 실마리가 있다. 89년생 가까운 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01년생 행운이 다가온다. 행운의 숫자 : 49, 51</p>	<p>35년생 양자 사이에서 애매한 부분이 보인다면 중용의 입장을 취하라. 47년생 구분하지 않고 함께 다루는 것도 괜찮다. 59년생 별일 없었다. 71년생 조금씩 습성이 터지면서 자생력이 되어 준다. 83년생 귀한 이가 떠나거나 귀중품이 사라질 수도 있다. 95년생 쫓대를 가지고 일관성 있는 진행을 해나감에 성사의 관건이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2, 85</p>